

# 전북도, 한파 대응 비상근무 가동

### 24간 상황 유지·사전에찰 활동 강화 주민불편 최소화

전북도내 동부권 5개 시군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 전북도는 한파 대응 비상근무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기온이 급하강 하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지며, 당분간 낮에도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한파주의보는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C 이상 하강하여 3°C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C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C이하가 2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도 한파대처 관련실과와 시군 재난부서의와 한파 대응 협업체계를 가동하고 24시간 상 황유지 체계에 돌입하는 한편 대응 사전예찰 활동과 재산피해 최소화 대응에 나섰다.

우선 인명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 서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의 야

외활동 자제 등의 행동요령을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토록 시군 과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또 수도관 동파 방지를 위해서 수도계량기에 현웃 등을 채워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유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수도시설 동파 대비 피해 시설 긴급복구 비상대책반을 운영 하여 노후 주택 등 저소득층 주거지 에서 동파 발생 시 최우선 복구조치 대응 태세를 갖추기도 했다.

농작물 보온유지를 위해서는 과수 밀 등 싸메주기, 짚, 신문, 보온자재 를 활용 하는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한파와 더불어 강한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화재 발생으로 소중 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취약시설 점검과 대비업무 만전을 기하도록 일선 시군과 관계부서 등 에 강조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한 파로 인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총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고" 밝히고, "한파 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민들께서 도 인화성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국민 행동요령 수칙을 지켜 안전 한 겨울나기에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도, 올 하반기 퇴임식

전북도는 27일 도청 공현장에서 퇴직자와 공로 연수자 및 가족, 동료 공무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하반기 퇴(이)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퇴(이)임자들은 그간 뒷바라지 해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동료 및 후배들과 한자리에 모여 지난날을 회상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송하진 도지사는 송별사를 통해 “많은 가족과 동료 선배들이 모인 가운데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새로운 길을 향한 퇴(이)임자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언제까지나 응원하겠다”고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심분 발휘하여, 도민들에게 받은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길수 퇴직자 대표는 퇴임사를 통해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을 동료들과 함께해서 작은 힘이나마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며 “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현실로 극대화시켜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후대의 번영을 이어갈 전북을 만들어 달라”고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총 46명(정년퇴직 12, 명예퇴직 4, 공로연수 30)이 공무원 현직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도내 종교인들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촉구  
전북도기독교연합회와 대한불교조계종제17교구, 원불교전북교구, 천주교전주교구 등으로 구성된 세계(전라북도)종교평화협의회는 27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도, 내년도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공모 시작

전북도에서는 2019년도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인 '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사업'과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구, 사회단체보조금)'의 대상사업 선정·지원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전북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인 ▲'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 사업'은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문화복지 및 문화예

술진흥지원사업은 도내 문화예술 관련 공익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 대상사업으로는 공연, 시각, 다원예술 등 3개 분야로 회원 100명 이상의 전북도소재 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문화예술단체와 도지정 전문예술법인과 단체중 공모요강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

은 도내 문화예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나 사업수혜 지역이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는 지원이 제외되며,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이 있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가능하다.

이번 2019년도 문화예술전문단체 지원사업의 경우 전문성 및 사업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고 사업 지원목표와 부합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적합성, 실행가능성 등을 심사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2월중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3월초에 단체 회계교육을 통해 보조금에 산련성기준 및 회계처리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전북글로벌게임센터, 전국 '우수'

### 한콘진, 9곳 대상 평가 실시... 내년 국비 12억5000만원 확보

전북글로벌게임센터가 2년 연속 전국 우수 평가를 받았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업평가 를 통한 성과확산 유도를 위해 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의 연간 성과 및 차년도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예산 차등지급을 위해 전국 9개 글로벌게임센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내용은 2018년 보조사업 실적 과 2019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9개 기관중 우수 등급은 예산중액, 보통 등급은 예산유지, 미흡 등급은 예산감액 등을 2019년 사업에 적용하게 된다.

2018년도 전국 글로벌게임센터 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전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등 3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특히, 전북글로벌게임센터가 전국 최초 2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2019년 사업비는 인센티브를 포함 국비

총 12억5000만원을 받는다.

지난 3년 동안 (2015년~2017년) 전북글로벌게임센터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등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기능성 게임 육성에 집중해 왔으며, 도내 게임관련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총 317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134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입주 공간 10개실, 콘텐츠 테스트베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임인산업 육성, 미래게임 콘텐츠 육성, 글로벌 비즈니스확산 지원 등 도내 게임콘텐츠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통한 기업육성·발굴,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전북 게임산업 활성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 안동환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 "전북글로벌게임센터를 기반으로 도내 게임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폭넓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도,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합동 안전점검

### 내년 1월 9일까지 실시

전북도가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사 고와 관련해, 도내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내년 1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3개 업종(관광펜션업 34개소, 한옥체험업 245개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43개소)에 대하여 실시하며, 안전점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밀집되어 있는 전주한옥마을, 군산근대역사문화지구 등을 중점적으로 도 시군 관광부서와 소방,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스시설, 보일러, 취사시설, 배비류장 등 일산화탄소 발생가능시설 관리상태 △관광진흥법, 건축법, 소방법 등 법령 위반사항 △겨울철 화재안전 관리상태 등이다.

또한, 안전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보완조치 및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의 병행,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아직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설치의무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 점검과정에서 운영자들이 일

산화탄소 경보기 등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전북도 운동목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안전에 대해서는 작은 부분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전북도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공무원근로자 임금협약

송하진 전북도지사 위임을 받은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과 이권로 전국공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도영창 전북도청 지부장은 27일 도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2019년 전북도청 공무원근로자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주요 내용은 ▲2018년 대비 기본급 1.8% 인상 ▲정근수당 일부 인상 ▲대민지원비, 민원수당 신설 등이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노사가 상생하는 바람직한 관계가 되도록 함께 소통하자"고 당부했다.

도영창 지부장은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공극적으로 전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